

## 동계올림픽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추진

왕광익(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)

- 강원도 평창군·강릉시·정선군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간 개최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80여 개국의 선수 및 임원, IOC패밀리 등 관계자, 보도진 등 2만 6천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약 65조 원의 직·간접적 경제효과 발생이 예상
  - 직접적 경제효과가 약 21조 1천억 원이며, 개최 이후 관광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따른 간접적 경제효과가 약 43조 8천억 원으로 예상(현대경제연구소, 2011)
- 해외에서는 개최지역의 기존 자원과 동계올림픽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올림픽 폐막 후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
  - 미국레이크플래시드는 관광산업 프로그램 개발과 연간 125~200개의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고,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는 자연환경 보존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으로 현재 세계적인 관광지로 명성을 얻게 됨
- 우리나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역자원과 동계올림픽 자산을 연계하여 지역의 매력을 크게 높이고, 사계절 관광명소로 발전시켜가는 지역발전 추진이 필요

### | 정 | 책 | 적 | 시 | 사 | 점 |

- 1 개발위주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적 환경을 중시하는 친환경적 지역발전 추진이 필요
- 2 지역의 자연·문화·역사 자원과 동계올림픽 자산을 연계하여 지역 매력을 극대화하는 전략 개발이 필요
- 3 특정 계절에 국한하지 않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

# 1.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요

## ● 동계올림픽 개요

-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의 제1회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4년 주기로 통상 2월에 개최됨
  - 지금까지 총 21회의 대회가 개최되었으며, 제22회 대회는 2014년에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
-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군·강릉시·정선군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간 80여 개국 선수 및 임원, IOC패밀리, 보도진 등 2만 6천 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열리게 됨
  - 동계스포츠를 이끌 신세대, 신세계,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“New Horizon”을 슬로건으로 개최될 예정

## ●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효과

-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약 65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
  - 현대경제연구소(2011)에 따르면 직접적 경제효과가 약 21조 1천억 원, 개최 이후 관광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간접적 경제효과가 약 43조 8천억 원으로 전망됨



## 2. 해외의 동계올림픽 성공사례 및 시사점

### ● 미국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올림픽(1980)

-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인구 약 3만 명의 레이크플래시드(Lake Placid)는 서늘한 기후와 풍부한 적설량으로 동계올림픽을 두 차례(1932년, 1980년) 개최함

- 19세기 말에 광업과 농업 중심도시에서 휴양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,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세계적인 스포츠 관광도시로 발전

- 동계올림픽 시설의 유지 및 기능증진을 위해 1981년 ORDA(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: 올림픽 지역발전위원회)를 창설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체제를 확립

- 레이크플래시드의 관광산업 프로그램 개발과 연간 125~200개의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됨



출처: <http://www.lakeplacid.com/>

- 사계절 이용 가능한 레포츠 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방문객이 200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스포츠 관광도시로 발전

-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스키 점프대, 봅슬레이 경기장 등 전문 스포츠 경기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림픽 폐막 후에도 효율적으로 사용

### ●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(1994)

- 과거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릴레함메르(Lillehammer)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북쪽으로 17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

- 인구 2만 5천 명(면적 477km<sup>2</sup>) 규모의 소도시로 여러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겨울스포츠를 즐기기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음

- 생태적 자연환경을 중시하여 친환경올림픽의 “Green & White”를 표방하면서 유일하게 흑자재정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현한 올림픽으로 평가됨
  -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주민들은 릴레함메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,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,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짓고 나머지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
- 동계올림픽 개최 후 “Green Tourism”의 명소로 각광 받고 있으면서, 릴레함메르 도시인구의 8배인 20만 명이 매년 방문하는 세계적 관광지가 됨

### ●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(2014)

- 러시아 소치(Sochi)는 흑해 북동 해안에 위치한 인구 약 32만 9천 명 규모의 휴양도시임
  - 흑해와 카우카수스산 중간 지역에 위치한 비즈니스 여행지로 유명
  - 열대의 해변과 백설의 설원이 공존하는 도시로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가 예정



- 경기장을 집중배치하여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,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하며, 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
  - 동계올림픽 개최 후 불필요한 경기장들은 분해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시설을 필요로 하는 타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



## ● 시사점

-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올림픽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, 자연자원을 소중히 활용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친환경올림픽을 개최
  - 개발위주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적 환경을 중시하는 친환경 강조의 지역발전을 추진
- 기존의 자연 및 문화 자원과 동계올림픽 자산을 연계시켜 지역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개최 후에도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
  - 지역의 자연·문화·역사 자원과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새로운 자산을 연계시켜 지역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
-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로 사계절 이용 가능한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
  - 특정 계절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방문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발전하도록 하는 전략마련이 필요

## 3.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

### ● 기본방향

-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함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와 연계되는 지역발전 추진
  - 기존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발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필수적인 대회시설은 재생을 통해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친환경 올림픽 추진
- 기존의 자연·역사·문화 자원과 올림픽 자산을 연계시켜 지역매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지역발전 추진
  - 개최 이후에도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
- 사계절 이용 가능한 동계스포츠와 자연휴양의 메카로 발전시켜 관광 명소화
  - 동계휴양지 이미지가 강한 평창·정선과 하계휴양지 이미지가 강한 강릉을 연계시켜 동·하계 관광명소로 지역발전을 추진

## ● 추진전략

- 개최지역 중심시가지에 탄소저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검토
  -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과 철도역 인근 불량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
  - 동계올림픽 개최 시 탄소저감형 도시재생사례로 세계에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
  - 도로 및 주차장을 친환경의 탄소저감형으로 정비하고, 공원 및 녹지도 체계적으로 정비
  - 노후단독주택지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재축기금 지원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
- 동계올림픽 및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위한 녹색교통체계 구축
  - 주요 경기장을 연계하는 순환형 녹색교통체계(지상노면전차 또는 온라인전기버스 등)를 구축
  - 올림픽시설과 개최지역을 연계하는 도로를 새로운 체험형 녹색교통 관광시스템으로 시설정비를 추진
- 올림픽 개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및 중심시가지의 경관 정비·개선을 동계올림픽 지원과 동시에 지역부흥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
  - 평창, 강릉, 정선의 중심상업지역과 관광지의 기반시설을 정비
  - 동계올림픽 지원의 상업, 숙박시설은 세계적인 탄소저감형 친환경 에코관광단지로 리모델링 추진

●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왕광익 책임연구원 (kiwang@krihs.re.kr, 031-380-0264)